

## 미용 성형 열풍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 외모지상주의(lookism)와 미용성형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 한 광고 기획사가 13-43세 여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8%가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의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렀다.

또 직장인 10명중 9명은 성형수술이 성격이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대 여성 10명가운데 1명은 성형수술을 한 경험이 있고 35%는 성형수술을 희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내실보다는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풍조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근 한국의 성형수술 열풍을 대서특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형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내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풍토와 물질만능주의가 갈수록 팽배하고 있어 성형수술 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통계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600여명이 한해 10만-20만 건의 수술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 신사동과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는 고급스러운 성형외과 기관이 즐비할 정도로 성형외과의

매카(밀집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성형외과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당시 유명한 성형외과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명동과 신촌에 밀집해 있었다. 그뒤 90년대에 들어 경제적 패권이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성형외과도 강남으로 몰리게 됐다.

성형수술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이 행해지는 부분이 눈과 코 수술이다. 눈과 코 수술은 국내 미용성형의 초기단계인 1960년대에 시작됐다. 1970년대에는 유방확대와 축소 수술이 보급됐고 1980년대에는 광대뼈나 턱뼈등 뼈를 깎는 고난도 수술이 본격적으로 행해졌다. 1990년대 들어서는 주름 제거 수술과 지방 흡입 수술이 많이 보급됐다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말한다.

주름살 제거 수술로는 보톡스(botox) 시술법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모태통령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이마에 생긴 깊은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보톡스는 주름살이 있는 부위에 약물을 투여해 주름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적게들고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보톡스 주사는 이마의 굵은 주름등 세월의 풍상을 감쪽같이 없애는 마법의 주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회 비용이 40만-60만원 선으로 얼굴 3-4곳에 맞을 경우 비용이 백만원대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4-6개월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 다시



맞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성형수술은 이제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다. 40대 이후 중장년층의 성형문화는 젊은 층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40대 성형은 사회적 지위를 자타에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비교열세에 있다고 판단되면 성형으로 만회해보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이에 비해 20대 여성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돌적인 요구가 많고 안면 윤곽술을 통해 얼굴의 변화가 아닌 변신을 추구하는 현상이 20대에선 뚜렷하다. 30대의 성형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한다. 이미 결혼이나 취업을 해서 성형의 필요성이 적은 데다 한창 육아에 전념할 때여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용성형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거나 정신 착란을 겪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평소 빈약한 기습 때문에 고민해온 30살 이모씨는 지난 9월 14일 유방확대 수술을 받은 직후 기습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곧바로 숨졌다. 또 지방 흡입술을 받은 22살 진모씨도 허벅지 부분 살을 빼려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성형수술 경험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2%가 수술후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명중 4명이 부작용을 경험한 셈이다. 자신이 바라는 외모를 얻을 때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수술을 하는 성형중독증 환자가 생겨나고 급기야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형 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판의 근거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이다. 큰 키와 날씬한 몸매, 가름한 얼굴, 오흘한 콧날, 주름살없는 피부 등 미디어에 의해 모델링 된 이른바 미인의 조건 때문에 성형 붐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성형을 왜곡된 미적 관념에 사로잡힌 여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가 성형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은 비뚤어진 의식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성형후유증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얼굴을 10번이상 뜯어고쳐 중독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현상은 결코 정상이라고 할수 없다. 이렇다기는 부모가 만들어 준 얼굴은 온데 간데 없고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사는 희한한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여성들이 남성위주 사회를 돌파해 나가려면 외모에 매달려서는 안되며 실력이나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에 주력해야 한다. 환언하면 여성들은 외모를 가꿔 사회에 적응하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외모지상주의를 배격하도록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Z]

전문가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가  
성형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은 비뚤어진 의식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성형후유증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광호 · KBS 해설위원